

'내집같은 두레 사랑방' 호응

남원지역 참여 어르신 만족도 92.8%로 전년보다 2.5% 높아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올해 경로당 그룹-홈인 두레사랑방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77개소의 어르신 및 보호자, 운영관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좋은 반응이 나왔다.

두레사랑방은 독거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 보호시책으로 통틀어 4개월은 경로당에서 24시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인력한 겨

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이번 만족도 조사는 두레사랑방 운영 경로당 77개소의 참여어르신, 운영관계자, 참여어르신 보호자 5백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조사 결과 참여어르신의 만족도가 92.8%로 전년보다 2.5% 더 높게 나타났다. 만족자유료 식사해결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로움 감소 30.9%, 친목도모 20.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두레사랑방 운영관계자 및 참여어르신 보호자의 경우 전년에 비해 만족도가 각각 3%, 0.3% 감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이 부족하여 힘들다는 의견이 53.5%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용, 내년 예산 편성시 두레사랑방 운영 보조금 추가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레사랑방을 4년째 이용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이제는 두레사랑방이 내 집 같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체험명소로 폭발적 인기 얻어

4월~5월 체험객만 3만여명 ... 팸랜드 일반 관광객 등까지 합치면 올해 30만명 넘을 듯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전국적인 체험명소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체험관광을 희망하는 예약자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치즈테마파크 조성 이후 역대 최대 체험관광객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임실군에 따르면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치즈테마파크가 토달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이달에만 현재 1만6000여명의 치즈체험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체험객은 올해

초 3000여명 수준에서 4월 1만2000여명으로 경증 뛰더니, 5월에는 1만6000여명을 훌쩍 넘어섰고 있다.

4월과 5월 체험객만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4월~5월) 2만여명에 비해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군은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면 지난해 체험인원인 8만여명을 훨씬 뛰어넘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식 개장된 2011년 4만여명 수준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개장이

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여기에 레스토랑 이용객(8만여명)과 치즈팸랜드 일반 관광객(7만여명)과 치즈 판매소(5만여명) 등 관광객까지 합하면 올 한해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임실치즈축제에 다녀간 전국 관광객이 20만명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치즈체험객과 일반관광객, 축제관광객 등 50여만명이 찾는 국민관광지로 안착할 전망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 참두릅, 삼락농정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

순창 참두릅이 올해 전국적 유통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돈바는 삼락농정 대표 농산물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

군은 전국 대형마트 남포이 지난 19일 기준 순창지역 참두릅을 올해 총 출하량은 288톤 34억 6천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말 기준 최종 집계 210톤 27억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군은 5월말까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을 통해 출하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집계는 5월말이면 약 330톤 40억 정도의 출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의 효자 농산물로 삼락농정 대표 작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은 물론 공선출하회를 운영하면서 1달 동안 약 710명을 고용하는 고용창출 효과

파도 거뒀다. 이처럼 순창 참두릅이 전국적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원인은 품질 면에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창참두릅은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라 사포닌, 단백질,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다. 특히 순창참두릅은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관내 구림·동계·서순창 농협이 '공선출하회'를 조직해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친다. 군은 두릅을 10대 작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다.

두 번째 강점은 전략적 마케팅이다. 참두릅의 특성상 수확시기와 가격에 차이가 크고 장기 저장이 어렵다. 또 원순과 결순의 출하 간에 공백기가 있어 대형마트에 출하가 힘든 실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화장품산업지원센터, 풀뿌리기업육성 지원받아

남원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사장 이환주 남원시장)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이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과제 지원기관 선정에 연이은 성과로써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연구기반과 의지, 연구주체의 특성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원센터는 올해 초부터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화장품기업 2곳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리산하브 고부가가치 소재와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천연화장품 특화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지원센터는 이를 통해 3년간 16억 원에 이르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리산하브 천연화장품의 원료 표준화, 제품 개발, 기업의 사업화 지원, 시장개척에 나서게 된다.

지원센터는 이를 통해 3년간 16억 원에 이르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리산하브 천연화장품의 원료 표준

화, 제품 개발, 기업의 사업화 지원, 시장개척에 나서게 된다.

화장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남원시는 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유일의 지리산하브 원료 및 공급기반을 갖춘 천연화장품 기업 특화단지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우수 화장품 생산시설을 신축, 운영하고 있으며 9월이면 화장품 연구개발 및 기업의 사업화 지원 복합 시설인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센터가 완공된다.

이는 관련 연구와 연구 성과의 기업 이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고 지역 화장품기업의 성장을 돕게 된다.

지원센터는 바로 기업지원이 가능한 천연 소재·원료 개발과 제품기술 개발에 집중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지역 내외의 중소화장품기업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최근 성과를 보고 관련 기업의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고 남원시 화장품산업 관계자는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알기쉬운 예산 책자 출간

남원시(시장 이환주) 온새미로 예산동아리가 공직자들이 어려워하는 예산분야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알기 쉬운 예산이야기, 지방예산과 지방교부세' 실무 편람집을 출간하여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산분야는 공무원이 되면 퇴직 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따라 다니는 분야지만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게 사실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아동복지 상담실 운영

순창군이 관내 308개 마을 경로당과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동네 구석구석 찾아가는 아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혀 군민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찾아가는 아동복지 상담실은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 불편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복지취약 계층을 위해 관내 308개 마을 경로당과 행사장을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지난 아동복지상담실 운영 방침을 정하고 지난 17일 읍 노인위안잔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앞으로 해당과와 읍면이 함께 받을 편성을 주1회씩 마을이나 행사장을 찾아 각종 복지제도 홍보와 개별심층 면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기초연금,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대한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성황

'제14회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임실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이강년)가 주관하고 임실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2개 읍·면 24개팀 총 2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영두 군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의 열정을 응원했다.

읍·면 분회에서 선발된 대표선수로 구성된 남자12팀, 혼성12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공정성을 더하고 신뢰 받는 진행을 위해 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게이트볼연합회 심판관 18명이 참여했다.

매해 열리는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어르신의 체력증진과 회원 상호간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발돋움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의 참종다

순창군 귀농·귀촌 상담전화
063)650-5172~5174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gosunchang.com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이 참종다!
순창 귀농은 더 종다!